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포를 위한
Zoom 국제 컨버케이션

International Zoom Convocation:
Declaring a People's Korea Peace Agreement

2020년 7월 23일(목) 오후 6시 30분- 8시 40분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

Thurs, July 23, 2020
18:30-20:40 (Korea time) 11:30-13:40 (Geneva time) 05:30-07:40(EST)
Christian Bldg., Seoul, Korea

목 차 CONTENTS

일정	p.4
취지 및 인사	p.5
발제	
1. 한반도 위기와 해법-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	p.7
2.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 의미와 과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혜란	p.10
위원장	
논찬	
1. 국제지정학적 관점- 세계교회협의회 피터 프루브 국장	p.14
2. 한반도 비핵화 - ICAN 다니엘 회그스타 선생	p.17
3. 생명, 평화에 기초한 종교적 관점 - 팍스크리스티코리아 이성훈	p.21
상임대표	p.25
4. 여성의 관점 - WCDMZ 크리스틴 안 교수	p.26
5. 연구자의 관점 - 통일연구원 서보혁 박사	
평화의 인사	p.29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시민사회 활동보고	
1. 아시아퍼시픽 포럼 데렉 던컨 공동의장	p.30
2. 독일개신교연맹 클라우디아 오스타렉 목사	p.32
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	p.36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	p.45
참가자 명단	p.89

목 차 CONTENTS

Schedule	p.51
Welcoming	p.52
Keynote Presentations	
1. The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olutions	p.54
- Mr. Wooksik Cheong (Director of Peace Network)	
2. The Meaning and Challenge of a People's Peace Agreement	p.58
- Ms. Oh, Hye-ran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Responses	
1. Mr. Peter Prove (World Council of Churches)	p.63
2. Mr. Daniel Högsta (ICAN)	p.66
3. Prof. Lee Anselmo (Pax Christi Korea)	p.70
4. Dr. Christine Ahn (WCDMZ)	p.74
5. Dr. Seo Bo-hyug (KINU)	p.75
Greetings of Peace	p.78
Sharing of Partners' Initiatives	
1. Mr. Derek Duncan (AP Forum, North American Church)	p.79
2. Rev. Ostarek Claudia (German Church, EKD)	p.81
3. Ms. Hwang Soo-young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Korea)	p.84
A People's Korea Peace Agreement	p.85
Participant List	p.90

일 정

사회: 이문숙 목사 (NCCK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18:30-18:42	개회	활동보고와 단체대표 인사 (비디오 상영) 연대사 (비디오 상영) 1. WCC 총무직무대리 요한 사우카 신부 2. 6.15 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 3. CONGO 대표 리베라토 바우티스타 목사 취지 및 인사- NCCK 총무 이홍정 목사
18:42-19:03	발제	1. 한반도 위기와 해법-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 2.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 의미와 과제 평화와통일을어는사람들 오혜란 위원장
19:03-19:44	논찬	1. 국제지정학적 관점- 세계교회협의회 피터 프루브 국장 2. 한반도 비핵화 - ICAN 다니엘 회그스타 선생 3. 생명, 평화에 기초한 종교적 관점 - 팍스크리스티코리아 이성훈 상임대표 표 4. 여성의 관점 - WCDMZ 크리스틴 안 교수 5. 연구자의 관점 - 통일연구원 서보혁 박사
19:44-19:55	질의응답	
19:55-19:57	평화의 인사	NCCK 화해통일위원장 허원배 목사
19:57-20:00	평화의 노래 / 휴식	
20:00-20:16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시민사회 활동보고	1. 아시아퍼시픽 포럼 데렉 던컨 공동의장 2. 독일개신교연맹 클라우디아 오스타렉 목사 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
20:16-20:35	종합정리와 토론	
20:35-20:45	선언문 채택과 폐회	

취지 및 인사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19세기 제국주의의 전성기 이후 우리 민족은 일련의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가 비극적인 민족분열로 귀결되면서 제국주의적 강대국들의 패권투쟁이라는 격렬한 소용돌이로 인해 고통 당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밤이 지나가는 냉전 초기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38선을 따라 두 개의 별도 구역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는 각각 한반도의 완전한 주권을 주장하며 1948년 8월에 수립된 대한민국(남한)과 9월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적대적 정부 체제로 이어졌고, 이것은 전쟁을 위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분단을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한 양측의 군대는 1948년부터 국경을 따라 일련의 유혈충돌을 벌였고, 결국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유엔은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수용을 거부하고 무력으로 통일 할 것을 계속 촉구했기 때문에 1953년 7월 27일 한국 정전협정은 미-유엔군사령부, 조선인민군, 중국 인민의용군 등 3개국에 의해 서만 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3개월 안에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대 행위와 한국에서의 모든 무력행위의 완전한 종식을 보증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냉전은 분단을 공고히 했으며, 최종적인 평화 정착의 부재로 냉전 동맹이 영속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종과 후에 아시아에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과 맺은 안보조약과 1953년 판문점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판문점 체제는 냉전 지향적

북합체제에서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중추 역할을 하였습니다. '소극적' 평화체제는 한반도에서 '원수'로 선언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분단과 폭력을 제도화하면서 한국인들 간의 관계를 왜곡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민의 생명안보는 '평화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자국민을 희생시키므로 각자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각 국가 정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단기적인 전술적 편의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과 소련의 가장 무모한 타협이었습니다. 이는 냉전시대의 치욕적인 이념적 정치적 격동의 가장 뼈아픈 잔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분단과 한국전쟁은 하나님과의 계약의 위반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인류, 자연에 대한 구조적 죄악입니다. 그것들은 만물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모순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위해 행하신 총체적 구원행동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찰한다면 한반도의 분단은 끝이 될 수 없습니다. 민의 신학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분단은 총체적 갱신을 이루기 위해 변혁의 의지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의 생명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냉전분단체제를 해체함으로써,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극적' 평화를 발전시키는 치유와 화해의 사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한반도는 진리가 통치하는 희년의 새로운 창조물로 되살아 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전쟁 70주년인 올해 정전협정 체결을 기억하면서 세계 종교 시민사회가 민의 평화협정을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역사적 배경과 정신입니다.

한반도 위기와 해법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남북관계마저 악화되면서 한반도 평화도 또다시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왔다.

우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데이트 폭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좋아한다”, “신뢰한다”, 심지어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대북 제재를 강화시켜왔다. 이런 트럼프에게 농락당했다고 여긴 북한은 ‘장기전’을 예고하면서 자력갱생 및 핵 억제력 강화를 통해 ‘정면돌파’를 다짐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착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계적 해법’에 집착한 것이 대표적이다.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의 협상 전략은 비핵화를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영변 핵시설 폐기→핵물질 처리→핵무기 폐기’로 나누고는 단계별로 상응조치를 받아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정도만 폐기하면서 제재 완화와 같은 상응조치를 받아내고는 핵무기는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에 힘을 실어주고 말았다. 핵무기 폐기 이행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 시한과 방식은 협상 초기부터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상응조치도 협상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 북한과 “단계적 군축” 추진에 합의했던 만큼 역대급 군비증강을 자제했어야 했다. 트럼프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김정은에게 두 차례 약속했던 만큼 이를 지렛대로 삼아 연합훈련 중단을 실천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병행 발전을 추구했어야 했다. 상호 모순적인 목표들을 추구했던 문

재인 정부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과 군비증강을 우선시하고 말았다. 또한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를 둘러싼 북미간의 동상이몽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같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한국식 해법을 만드는 데 소홀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문이 닫히고 코로나19 사태 및 미국 대선을 고려할 때, 차분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와 관련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먼저 한반도 핵문제의 해법으로 비핵무기지대(비핵지대)를 삼자는 것이다. 비핵지대는 남 북한이 “비핵지대 내” 당사자들로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공식적인 핵보유국들이 “비핵지대 외” 당사자들로 이 조약에 참여하는 구도를 일컫는다.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절박한 이유는 비핵화의 정의 및 최종 상태를 둘러싼 북미간의 동상이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에 있다. 남북미는 2018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비핵화의 최종 상태는 물론이고 정의 자체에 대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존재하지 않는’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를 두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비핵지대를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 상태로 삼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다. 더구나 비핵지대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비핵화’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다.

한반도 비핵지대의 또 다른 의미는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면서도 핵문제 해결이 막히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에 있다.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군비 통제, 대북 제재 해결 등이 ‘동시적·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비핵화의 정의 및 목표 자체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들 문제의 진전도 가로막혀 있다. 이에 반해 비핵지대를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으면 이들 문제의 진전도 가능해질 수 있다.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이야말로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식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유엔은 비핵지대와 관련해 “지대 내 국가들의 자유로운 협상 결과에 기초”하고 “핵보유국을 비롯한 지대 밖의 국가

들도 지지·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의 지내 내 국가들은 바로 남북한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이 비핵지대 협상에 착수하고 핵보유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또 하나의 중대한 관문이 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냉전 시대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고 70년 가까이 ‘멈춘 상태’인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도 소중한 목표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및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안보 증진과 세계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평화협정을 비핵화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면서 비핵화 완료 이후나 이와 동시에 체결하는 방안이 주로 모색되어왔다. 이제는 다른 접근을 모색할 때이다. 평화협정 자체가 당사국들이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이자 비핵화에 결정적인 추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 유력한 옵션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비핵화’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접근이 요구된다.

문재인-김정은-트럼프 중심의 ‘톱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한반도 평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세력들의 백래시도 충분히 경험했다. 그렇다면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국내외 시민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한반도 핵문제 해법으로 비핵지대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 있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넘쳐나지만, 최고의 전망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데에 있다.

발제 2.

민(民)의 평화협정 선언문 의미와 과제

- 한반도 평화협정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집행위원장

1. 경과

- 2020. 1. 22 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안, 민(民)의 평화협정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 2020. 4. 17 민의 평화협정 만들기 1차 토론회
- 2020. 5. 19 민의 평화협정 만들기 2차 토론회
- 2020. 6~7월 TF 논의와 수차례의 실무그룹 회의를 거쳐 전문, 평화협정의 기본 원칙, 평화협정 핵심 요소(12 개의 항)로 구성된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 완성

2. 선언문 전문

-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종식, 새로운 평화시대를 여는 '첫걸음'으로 규정함.
- 남북, 북미 정상외 판문점/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에서 공약한 새로운 평화시대를, 민(民)이 주역이 되어 완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냄.

3. 평화협정의 기본 원칙

- 기본 원칙에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를 남, 북, 미, 중 4자로 정리함. 이는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 당

사자에 대한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데 기여할 것임. 휴전협정 당사자인 북, 미, 중은 당연히 당사자이며, 남한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어서 평화협정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남한은 한국전쟁 교전 당사자이자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평화협정 당사자로 되어야 함.

- 기본 원칙에 “유엔헌장 준수, 평화통일 관련 기존 남북합의 존중,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 노력 지지”를 명시한 것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분단극복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며, 이는 세계평화를 위한 유엔의 목적에도 부합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임.
- 기본 원칙에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선 비핵화 또는 선 평화협정 정책으로는 판문점과 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을 한 단계 진전시켜내기 어렵다는 민의 통일된 인식을 반영한 것임.
-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의 동시/단계적 실현은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 대화 재개와 하노이 잠정 합의를 되살림으로써 싱가포르 선언을 전면 이행할 수 있게 해줌.

4. 평화협정의 핵심 요소

- 2항¹ (남과 북의 경계선) : 국경선이 아니라 경계선으로 표현한 것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라는 민의 통일된 인식을 반영한 것임. 휴전협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해상과 공중의 경계선은 남북의 합의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 것은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은 남북이 자주적으로 정해야 하며 기존 북방한계선이 경계선으로 될 수 없다는 민의 통일적 인식을 반영한 것임.
- 4항(불가침), 5항(국교 정상화), 6항(평화협정에 위배되는 국내법 개폐) 등 : 평화협정이 단순히 평화의 회복에 그쳐서는 안 되며 평화상태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면 북미, 남북 간 불가침,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무력사용포기, 북미 국교 수립, 평화협정에 위배되는 법률 개폐 등의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민의 통일된 인식을 반영한 것임, 다만 4항(불가침)에서 “당사국들/남북, 북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하여 당사국들 /남북, 북미를 병기한 것

¹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에는 평화협정에 포함할 내용을 일련번호를 붙이지 않고 명시함. 이하 각 항은 필자가 편의상 붙인 번호임.

은 논의 과정에서의 약간의 이견²을 고려한 표현임.

- 3항(평화생태지대), 7항(정치군사적 신뢰 조성), 8항(군축) 등 : 남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불가침과 무력사용을 금지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으므로 평화상태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군사적 방안을 반드시 평화협정에 담아야 한다는 민의 통일적 인식을 반영한 것임. 3항 기존 비무장지대의 평화생태지대로 전환은 전쟁과 분단, 죽음과 반목의 상징인 DMZ를 평화와 공존, 생명과 화해의 상징적 장소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임, 남북 상호간 군사적 긴장과 기습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대규모 공격작전을 개시할 능력을 제거하는 일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안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임. 이에 남북 군사합의서(2018. 9. 19)에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군사 훈련 전면 금지, 병력과 무기의 배치 제한 등의 보다 전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정과 지속을 가름하는 징표가 될 것임.
- 9항(비핵화), 10항(유엔사 해체와 외국군 철수) 등 : 2개의 항은 평화협정이 평화상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군축과 함께 비핵화와 외국군 철수 문제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민의 일치된 인식을 반영한 것임. 한국 시민사회/ 종교단체 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북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미는 핵우산을 폐기한다.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될 일체의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로 모아낸 것은 민의 평화협정이 이룬 성과 중의 하나임. 10항 (유엔사 해체, 외국군 단계적 철수)은 유엔사 해체가 한국전쟁의 완전 종료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함. 그러나 주한 미군 문제에 대해 “평화협정 발효와 함께...외국군은 단계적으로 철수 한다”로 모아낸 것은 전적으로 민의 평화협정 만들기를 주도한 NCKK의 노력에 대한 제안 단체들의 호응과 협조로 이룬 의미 있는 성과임.

5. 민의 평화협정 선언 - 의미와 과제

- 평화협정의 위상과 관련하여 한국전쟁의 종식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실현하자면 법/제도적으로 이를 담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한 합의를 이룸. 이는 평화협정 운동의

² 협정 당사국 중 중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없다는 점에서 남북, 북미로 명기하자는 의견과 중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없으나 미중 간 신냉전적 대결을 고려하여 당사국으로 표현하자는 의견.

대중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의미가 있음.

- 평화협정 내용과 관련하여 평화상태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대 관계의 청산과 불가침, 관계 정상화는 물론 외국군과 핵무기를 없애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등 군사적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이룸. 이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와 실현 운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의미가 있음.
- 평화협정 핵심 요소의 이행과 관련하여 판문점/평양선언, 싱가포르 성명에 따라 한도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를 동시/단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데 합의함. 이는 민의 평화협정의 합리성, 현실성, 타당성을 뒷받침 해줌.
- 이후 민의 평화협정 선언문을 사실적 근거위에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교육, 홍보, 사회적 대화, 캠페인 등을 통해 국제적, 국내적 지지와 동의를 모아나가야 함. 이를 위해 평화협정 준비 위원회를 짜임새 있게 운영 발전시키고, 참여 단체 사이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함.

논찬 1. 국제지정학적 관점

피터 프루브

세계교회협의회 세계협력국

1953년 정전협정은 “최종적으로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것을 명시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정문 제4조(60항)는 “한국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협의”하기 위해 3개월 내에 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회담을 소집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로 1954년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내 갈등과 인도차이나 내 갈등에 대한 회의가 개최됐다. 안타깝게도, 한반도 평화협정을 향한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고, 미국은 그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회피했다고 한다.

또한 정전협정 13(ㄹ)항에는 양쪽 모두 이미 존재하는 장비의 부품 교체 외에는 한국 내에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956/57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도입함으로써 13(ㄹ)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음을 발표했고, 결국 90년대 초반까지 핵무기 수백 기를 배치했다.

1975년, 유엔총회는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그 기간 동안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저로 하는 결의안 3390호를 채택했다. 마찬가지로, 199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온두라스 안보리 의장의 성명을 통해 새로운 평화 메커니즘으로 대체될 때까지 정전협정은 완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994년 이후 북한은 미국의 남한 내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정전협정의 폐기로 간주한다며 정전협정을 더이상 준수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그해 4월 28일, 북한은 군사 정전위원회 참여를 중단하되, 연락장교를 통해 판문점에서의 접촉을 지속하고 정전의 일반적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명백하게 양국은 1953년 정전협정을 때로는 폐기하고 무효화하였는데, 이는 정전협정이 평화를 구축하기엔 매우 불안정한 기반임을 보여 준다. 평화조약은 이미 오래 전에 체결되어야 했다. 관련 정치 지도자들이 67년 동안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온 상황에서, 한반도를 위한 민의 평화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계획은 책임있는 정치 당국의 행동에 지침이자 자극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문에서 명시하듯이, 민의 평화 협정은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선포되었다. 정전협정 70주년인 2023년 7월 27일 전까지 당사국에 의한 (공식) 평화협정 체결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의 평화협정의 원칙과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국가들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서 법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1953년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이들 간의 상관관계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무력 통일 실패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북한과 미국(유엔 사령부를 대표해)은 본질적으로 정전협정의 유일한 당사국이 되었다. 그러나 민의 평화협정에 제시된 것처럼, 최소한이라도 실행 가능한 평화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서명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협정 본문은 “평화 체제의 단계적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점진적인 단계별 접근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후속 과정 실패의 주요 원인이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양측의 서로 다른 이해와 기대는 최근 정치적 기회를 놓친 것과 많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유로 본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우산을 폐기해야 한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유용하다. 실제로 핵우산의 제거가 무엇을 수반해야 하는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 제안된 당사국들, 특별히 북미간 외교관계의 재개는 명백한 핵심 요소이다. 역사적으로 평화 조성 환경에 독이 된 조치와 행동, 즉 위협적인 군사 훈련과 무거운 제재, 그리고 “상호 비방”을 제거하는 것도 핵심적 내용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본문에서 제안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자기 방어권이 유보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평화협정 구축에 포함되는 일부 다른 요소들이 본문에 들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계획의 진정한 목적이나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의 평화협정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는 시민사회가 평화를 위한 리더십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민의 평화협정 서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치 군사적 이권에 연루된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향한 민중의 열망을 외면하기에 민이 스스로 바꾸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논찬 2. 한반도 비핵화

다니엘 회그스타

ICAN

ICAN을 초청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발언을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지역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중대한 과정인 민의 평화협정을 완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올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ICAN은 이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수만 명의 한국인 히바쿠샤(방사능 피폭자)를 포함한 **히바쿠샤(방사능 피폭자)**를 기리기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살아온 삶과 핵무기 폐기를 위해 그들이 영감을 준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많은 희생을 기리고 그들이 가져온 많은 승리들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비인간적인 공격을 당하고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을 기립니다. 그리고 핵무기의 파괴적 영향에 희생당한 많은 이들을 기립니다. 최초의 핵무기 실험과 핵무기 사용 이후 발생한 환경 파괴로 희생당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란 바로 이 “민의 평화협정”으로 상징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존재와 사용으로 인한 위협은 용납할 수 없는 인도주의적 위협입니다. 어떠한 공격의 여파도 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양에 대한 공격은 서울을 치명적인 방사선으로 뒤덮을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열린 북미 간 정상회담에 앞서 ICAN은 한반도 비핵화에

필수적인 5가지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평화협정과 상호 보완되는 이
요점들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남한은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거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는 한반도에 핵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군사 및
기술적 조치를 금지해야 한다.

**첫째, 양측은 핵 이용의 위협과 그 사용이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인식해야 합니다.**

- 인구 밀집 지역에서 핵무기가 한 번 터지면 수십만 또는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한정된 지역의 핵분쟁이라도 지구 기후를 교란시켜
광범위한 농작물 파괴와 기근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 핵무기는 폭발, 열 및 방사선의 형태로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라운드 제로에 가까운 거의 모든 것이 기화됩니다. 이온화 방사선은 세포를
죽이고 장기를 손상시키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암, 만성질환,
유전적 손상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데, 특히 어린이와 여성의 경우 더 크게
증가합니다.
- 폭발 직후의 여파로 지역 및 국가 비상 대응 능력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한, 인도주의적 요구에 압도될 것입니다.
- 국제 적십자위원회 (Red Cross of International of the Red Cross)는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생존자에게 적절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역량은 현재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독특하게 광범위한
파괴의 규모를 고려할 때, 부상당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끔찍한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남겨질 것입니다.
-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핵무기 사용의 위험은 크게 과소평가 되었고, 많은 경우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핵 비축물 관리 및 운용 시스템은 취약성이 불가피하며,
인간의 실수와 시스템 장애가 예상하지 못한 재앙적인 결과를 빠르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식 지휘통제시스템과 사이버 공격방식의 발전이 결합되면 핵무기는
결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없다는 현실과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해체와 한국의 미국 핵무기 배치를 영구적으로 금지할 뿐 아니라 평화 프로세스의 일부가 될 지속 가능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것이 바로 평화협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양측은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가입하고 안보 정책에서 어떤 종류의 핵무기 역할도 거부함으로써 핵무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 생산, 제조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또한 핵 무기 프로그램을 없애고 안전조치의 이행을 재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핵화'를 해야 합니다. 한국을 대신한 핵 공격 위협을 포함하여 핵무기의 개발, 보유 또는 사용을 "지원, 유도 또는 장려"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해야 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이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에 대한 한국의 대중적 지지는 여러 방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의 2017년 공동성명은 미국이 "재래식 및 핵무기 등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 한미 양국은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ie)'에 합의했습니다. 전략 자체는 기밀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 공동성명은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확장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이나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한국이 사실상 안보 정책의 한 요소로서 "확장된 핵 억제력"을 거부하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핵 우산"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은 검증가능하고 시한적인 군축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핵무기금지조약 하에서, 북한은 유능한 국제 기관과 협력하여 핵무기 프로그램의 총체 제거를 위한 시한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것들은 꽤 자명합니다. 북한은 CTBT(포괄적핵실험 금지)를 비준해야 하고,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다시 가입해서 세계 핵 군축에 전념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으며, 75주년 기념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핵무기의 공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북한이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폭격에 희생된 수만 명의 한국인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격의 생존자인 많은 한국인 "히바쿠샤(방사능 피폭자)"들이 이 고통스러운 장의 종결을 목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진정으로 영감을 주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데 ICAN은 계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논찬 3. 생명, 평화에 기초한 종교적 관점

이성훈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

팍스크리스티코리아(PCK) 공동대표

PCK는 작년 8월 말 출범. 가톨릭 평화운동 단체로 평신도와 성직자도 동등하게 참여. 주교 회원도 있고 이기헌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주교가 고문.

가톨릭사회교리 중 ‘보편적’ 평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증진 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운동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올해 5월 국제 팍스크리스티 (PCI)의 정식 회원단체로 승인.

PCI는 2017년 이후 한반도 갈등과 평화에 관심을 갖고 성명서 등을 통해 연대해 왔음.

PCI www.PaxChristi.net PCK – www.PaxChristiKorea.org

한국 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초부터 매일 9시에 한반도평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결정, 이에 따라 PCK 회원은 매일 9시 한반도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내 평화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캠페인에도 참여 중.

○ 문서 명칭에 대해서

A Declaration of People’s Korea Peace Agreement

- People은 보통 인민(人民), 국민(國民), 민중(民衆), 시민(市民) 등으로 번역하는데 각 번역어가 지닌 한계를 고려하여 공통분모인 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
- 협정은 Treaty, Convention, Covenant 등 다양한 법률적 용어가 있지만 Agreement 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해함.

- 한반도는 Korean Peninsula로 단순화하여 표기한 것으로 이해함.

○ 부제

70 Years is Enough 슬로건 사용 제안

70주년은 이중적 의미.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현재 시민사회와 평화단체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종전 캠페인과 연계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ljA6eM6Gx64pjch_mVEWtnOG2DH6NkWghFqodBmzB4/edit

○ 전문

- 첫 단락에 한국전쟁의 배경과 국제 전쟁의 성격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그래야 왜 국제캠페인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 도움. 예를 들어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태평양 전쟁 항복의 결과 한반도의 식민지배로부터의 온전한 해방이 아니라 승전국의 자의적 결정에 따른 38선 분단, 유엔의 깃발 하에 참전

-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평화와 인권 연계 부분 언급 제안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의 자유,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기에,”

- 이는 소극적인 전쟁없는 평화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평화, 정의로운 평화 Just Peace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평화협정의 기본 원칙

- 민족자결권과 평화권에 대한 언급 필요

- 유엔의 역할과 책임

- 핵무기금지조약(TPNW) 등 유엔 총회가 채택한 핵무기와 군축 관련 국제협약 비준과 실행의 중요성 언급

- 남북한의 합의와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음. 남북한의 경우 김대중 정부의 6.15,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성명도 판문점 선언 (4.27), 평양 공동선언 (9.19)과 함께 명시 필요.

○ 본문 내용

○ 비핵화와 평화협정 연계

- 북핵 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함.
- 비핵화가 평화협정의 전제 조건인지, 평화협정이 비핵화 과정의 한 단계인지,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서로 영향을 주지만 전략적으로 별도의 사안으로 접근하는지 등.
- 더 나아가 한반도 포함 동북아 비핵지대화과 집단안보체제에 포함 제안.
- 종전협정 추진 운동 과정과 이후 후속 캠페인에서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비핵지대화 국가의 지지를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통해 남과 북만의 균축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균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현재의 아래 내용에 대해 전문이나 설명자료에 언급이 필요함.

“ 북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미는 핵우산을 폐기한다.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될 일체의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 추가 제안

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인권 및 인도적 문제를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 필요.

인권에 대한 언급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인도주의 언급하고 인도주의법 하에서 일부 인권문제를 다룰 수도 있음.

- *“당사국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전쟁과 정전 상태에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노력한다.”*

참고로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제7조에 동서독이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실무적 및 인도적 사안(practical and humanitarian questions)을 다룰 준비가 돼 있다는 선언이 들어가 있음.

○ 결론

내용 이후 결론 부분에 관련 당사국 및 국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해서 끝 부분에 아래 문구 추가 제안.

-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 이해당사국과 관계국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 및 평화체제 수립과 연관된 국제기구의 기여를 촉구한다.
-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 모든 시민사회와 종교인의 참여를 요청한다.

○ 그리고 마지막 문구로

한국전쟁 정전 6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아래 서명단체)는 이 선언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논찬 4. 여성의 관점

크리스틴 안
WCDMZ

논찬 5. 연구자의 관점

서보혁
통일연구원

○ 민의 평화협정과 법제도적 평화협정

- 민의 평화협정이 기초가 되어 법제도적 평화협정이 구체화 되는데, 전자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후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실행방안을 담는 것
- 이런 관계 설정은 둘을 상호보완적으로 보는 점에서 유용하고, 민의 참여에 기반한 국가간 합의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시각
- 다만, 민의 평화협정 제안이 “정치 군사적 이권에 연루된 이들”, “분단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의 반평화적 태도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언급은 그 집단의 규명, 평화협정 체결 여론 조성 등 여러 면에서 토론의 여지를 제공해주고 있음

○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 평화협정은 평화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정치적, 법적 방법으로서 경제적, 문화적 조치들과 병행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되고,
-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당사자들 사이의 신뢰 수준과 역학관계, 대내적 요인, 합의 이행에 관한 이해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 가변적
- 실제 평화협정은 합의 이후 파기, 위반된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협정 채택시 지지 여론 및 당사자들 간 신뢰조성 등 비가역적 협정 이행 방안 마련이 중요
- 평화협정의 내용과 형식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한반도의 경우 그 맥락에 알맞은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종전선언과 복수의 평화협정 등이 거론되어 있음.
- 종전선언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와 정치적 선언의 경우로 나뉠 수 있고, 한반도의 경우 후자에 가깝고 필요시 복수로 행하며 비핵평화 프로세스 촉진에 기여

○ 정전체제

- 정전체제는 평화체제와 분명 큰 차이가 있는 단계로서, 전자에서는 불안정한 평화, 후

자에서는 안정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음

- 그러나 정전체제와 평화체제는 분쟁의 평화적 전환 단계에서 실행가능한 거대 프로젝트

- 그런 점에서 정전체제를 “전쟁 지속의 다른 이름”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더 합리적이고 건설적.

○ 평화협정의 기본원칙

- 협정의 당사자에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유엔이 빠지는 문제를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협정이 민의 시각에 서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칙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가령,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공동의 추모와 기억, 평화생태의 관점에서 전쟁 및 정전체제에 대한 교육, 그리고 평화구축의 과정과 목적에서 민의 참여와 역할 보장 등을 포함하는 것을 권고함.

○ 평화협정의 내용

- 내용을 나열하기보다 행위자별, 주제별, 시간대별로 묶어 제시함이 보다 현실타당

- 가령, 행위자별 내용으로는 협정 당사자 전체, 남북, 북미, 세계 평화애호민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음.

- 주제별로는 경계, 안전보장, 비핵지대화, 평화관리, 외국군과 대외관계, 화해, 인도주의, 평화교육 등으로 논의 가능

- 시간대별로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협상, 평화협정 체결, 평화협정 이행 등으로 나누되 비핵화와 북미관계를 주요 변수로 각 단계를 규정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

-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종전선언을 채택할 경우, 첫 번째 제안은 불필요

- 경계 관련 제안에는 다음을 추가: “정전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계선은 남북이 합의하여 전환한다. 단,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기존에 쌍방이 관리해온 구역을 존중하고 분쟁 발생시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add:”Boundaries not stipulated in the Armistice

- 북미관계 관련) “북한과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상에 나서고 정부간 대화, 지원과 교류 등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 비방과 제재, 압박을 중

단한다.

- 핵무기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명시함.
- 추가 제안)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 및 세계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관련국들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비핵지대화와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로 발전하도록 공동 협력한다.”

평화의 인사

허원배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어그러져 가위눌린 한반도 숨어 있는 평화를 끄집어내어 마음 편한 세상을 누리고 싶습니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그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말뿐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 70년을 눈물로 기도했고, 투사가 되어 싸우기도 했고, 길거리 마다 수없이 많은 성명서로 외치기도, 연대를 위해 세계를 찾아다니기도, 교도소에 갇히기도, 또 그지없는 안타까움으로 죽어 갔습니다. 이 배후에는 분단으로 인한 크고 깊은 한반도의 눈물이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절박함이 평화를 찾게 했습니다. 세계최대의 군사훈련이 매년 진행되고, 전쟁 비즈니스가 있고, 적대적 관계를 입증하는 단절된 DMZ, 비현실적인 분단이 산 생명들의 목살을 잡는 그런 평화결핍의 땅에서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민의 평화협정을 선언하는 자리에 전 세계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평화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민의 평화협정을 선언하는 자리, 모든 분들에게 한반도에서 시작된 미래의 평화가 넓게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시민사회 활동보고 1.

데렉 던컨

아시아 퍼시픽 포럼 공동의장

그리스도의교회(제자회), 미국연합그리스도의교회 세계선교국 동아시아 태평양 국
장

친구 및 파트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연합교회(UCC) 패티 탈봇과 함께 아시아 퍼시픽 포럼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데렉 던컨입니다. 여러분께 아시아 퍼시픽 포럼에 대해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단체와 구성원들의 활동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아시아 퍼시픽 포럼(APF)은 주로 아시아와 태평양 선교에 참여하는 복미 교단과 선교 단체로 구성된 에큐메니칼 모임입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들과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PF는 수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우선 의제로 삼고 있고, 매해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큰 행사인 ‘에큐메니칼 지지의 날’ 컨퍼런스에서 한반도 워크숍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NCKK와 여러 단체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 관련 문제의 중요성을 교인들에게 알리고, 미국 의회와 주정부,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이 사안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APF 구성원들은 미국의 전쟁 게임과 제주도 군사화, THAAD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등에 반대하는 중요한 로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초기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위협에 강력히 반대했고,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판문점 평화 선언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조약 체결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하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협상 초점을 변화시키기 위한 APF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2016년 아시아 퍼시픽 포럼은 NCKK 대표단이 미국에서 평화조약 캠페인을 알릴 수 있도록 행사를 주최하고 지원했습니다. 많은 교단

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나 선언을 통과시켰고,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남한의 파트너들과 함께 평화조약을 지지하는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역교회와 다양한 연회와 장로회, 그리고 헌신적인 한국계 미국인 단체 및 평화 단체들과 함께 제재 완화, 비핵화, 가족 상봉, 인도주의적 접근 등의 문제에 대해 배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포럼은 또한 다른 에큐메니칼 연합 및 관련 평화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연합교회의 패티 탈벗은 위민크로스DMZ와 함께 하고 있고 지난 주에는 NCCK 여성위원회와 세계교회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세계기독교여성들의 방문 프로그램(Women of Faith Pilgrim Team Visit)” 온라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한반도 평화, 통일 및 개발과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 (EFK)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에는 2020년을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해로 기념하기 위해 WCC와 NCCK가 진행하는 “2020 한반도 회년 세계교회 기도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PF는 올해 6월 워싱턴에서 미국교회협의회와 NCCK와 함께 노근리 학살을 기억하는 평화 회의와 예배를 공동 주관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부 구성원들은 대안으로 온라인 평화 기도회를 개최했고, 8월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일을 전후로 교육과 기도, 지지 활동을 위한 온라인 행사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컨버케이션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일 수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아시아 퍼시픽 포럼이 민의 한반도 평화 협정 선포를 위한 좀 국제 컨버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활동보고 2.

클라우디아 오스타렉 목사 독일개신교연맹

먼저 한 문구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가슴아픈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게 있어 분단은 과거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올해 통일 30주년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분단은 아직 쓰디쓴 현실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 자유, 안정을 추구함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독일은 굳건히 한국과 함께합니다.”

이것은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 맞이하여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연방대통령이 한국에 보낸 메세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나? 교회 관계의 역사

저는 우리 관계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헌신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독재에 대한 투쟁은 한국과 독일 교회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나치 정권에 맞선 독일 고백교회의 전통이 한국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칼 바르트와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은 한국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독일의 신학자들은 한국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WCC에 의해 시작된 도잔소 과정에 독일 교회들은 처음부터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984년 이후의 모든 양자 및 다자 국제 협의와 상호 방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분단 극복을 위해 교회가 어떻게 관여했는가에 대한 경험의 배경을

바탕으로, 이 모든 일에서 독일의 특별한 관심사는 한반도의 두 국가들 간에 자신감 구축하고 친선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독일의 매우 큰 교회 행사인 키르철타그에서 남북한 기독교인들이 구 동독의 영토에서 처음 만난 것은 특별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2004년 NCK 및 KCF 대표들과 국제 협의에서 한국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놀드 샤인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던 특별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언급한 내용들 이외에도 지역 교회와 선교기관에서 수많은 프로젝트와 기행, 파트너십 행사, 및 독일개신교연맹의 차원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독일 최대의 개신교 인도주의 지원단체인 디아코니아-카타스트로펜hilfe(Diakonie-Katastrophenhilfe)의 북한 기근에 대한 지원, 북한의 다양한 세계 빵 프로젝트, 한국 파트너들과 10년 가까이 함께한 DOAM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과의 헌신적인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 평화조약에 대한 약속

독일교회로서 우리는 WCC가 진행하는 한국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전 세계순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단되었다가 통일된 우리의 특별한 역사가 일정부분 역할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더 이상 지난 세기와 같지 않습니다.

평화조약캠페인과 관련하여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2017년 독일에서 열린 NCK 평화조약을 위한 순례 모임에서 한국의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평화를 위한 여정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 함께 되새겼습니다.

EMS와 개신교의 Hesse-Nassau과 같은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평화조약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적인 중재 운동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들은 회의, 정보나눔 행사,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한 예가 DOAM의 프로젝트 "기억의 방"입니다. 동아시아의 서로 다른 역사적 사건들이 그곳에서 회상되고 현재의 상황이 설명됩니다. 우리는 모두 WCC의 기도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위한 연대 메시지가 한국 파트너들에게 전달됐을 뿐 아니라 독일 언론에도 보내졌습니다. 한 예로써, 독일개신교연맹의 에큐메니컬 관계 및 해외 각 부처의 수장인 페트라 보세-후버 주교가

에큐메니칼 평화 메시지를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외에도, 독일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반도 분단과 평화, 통일을 주제로 예술가, 언론인, '한국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회의가 열렸습니다. 6월 27일 베를린에서 한국통신연구소가 촉구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중시위가 열렸습니다. 정치적인 재단 역시 한국의 화해 과정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Bread for the World (BFW)의 크리스천 피셔는 독일 의회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NGO와 재단이 초청된 회의에 참석해 경제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독일에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 과정을 위해 일하는 한 많은 단체들이 있으며, 정치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들은 이러한 주제들에 매우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아갈 길

한국을 위한 세계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환으로, 독일개신교연맹은 비록 한반도의 상황이 독일과 매우 다르지만, 분단되었다 통일된 국가로서 한반도의 상황을 우리의 논의에 항상 포함하겠습니다. 한국 파트너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정치권 책임자들과 대화를 하고 한국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있는, 독일과 한국 관계를 위해 많은 일을 해 온 루츠 드레셔 (Lutz Drescher)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이들을 위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남북한이 서로 꺼안고 형제자매로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Lutz Drescher)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보고 3.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SOOYOUNG, CENTER FOR PEACE&DISARMAMENT, PSPD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KOREA PEACE APPEAL : PEACE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CAMPAIGN GOAL 캠페인 목표

- ▶ Build people's solidarity and common actions to end the Korean War
- ▶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세계 시민들의 연대와 공동행동
- ▶ Gain support and participation of various governments and parliaments for the Korea Peace Appeal calling for transition from armistice to peace
- ▶ 휴전에서 평화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각국 정부와 의회의 지지와 참여
- ▶ Launch and achieve negotiations between relevant governments to establish a peace regime
-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정부의 협상 착수와 성공



CAMPAIGN PERIOD 캠페인 기간

27 July 2020 ~ 27 July 2023 (3 years)
2020년 7월 27일 ~ 2023년 7월 27일 (3년)



MAIN STRATEGY 캠페인 전략

- ▶ Gather support and signatures of people all across the world on the Korea Peace Appeal based on wide networks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 ▶ 한국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전 세계 시민들의 서명과 지지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평화선언

- ▶ End the Korean War and establish a peace agreement
- ▶ 한국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 ▶ Create a Korean Peninsula and a world free from nuclear weapons and their threat
- ▶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평화선언

- ▶ Resolve the conflict with dialogue and cooperation instead of sanctions and pressure
- ▶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 ▶ Brea from the vicious cycle of an arms race and invest in human securit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 ▶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투자합시다



CAMPAIGN PLAN 캠페인 계획

- ▶ Collect 100 million signatures from people all across the world
- ▶ Deliver them to the United Nations and to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involved in the Korean War including ROK, DPRK, US, and China
- ▶ 전 세계 1억 명 서명을 모아 적절한 시기에 남,북,미,중을 포함한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와 유엔에 전달



CAMPAIGN PLAN 캠페인 계획

- ▶ Mobilize each group to join Korea Peace Appeal
- ▶ 각 단체별, 분야별, 지역별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조직
- ▶ Lobby each government and parliament to join the campaign
- ▶ 각국 정부와 의회의 한반도 평화선언 참여 촉구
- ▶ Hold conference regar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종 토론회 개최



LET'S END THE
ENDLESS KOREAN WAR
함께 한국 전쟁을 끝내요





